大正十一年六月三十日 (金曜日) THE DONG-A DAILY, SEOUL 第六百七十一號 (一) (第三種郵便物認可)

東亞日報

新聞定價 廣告料金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本社)… 振替口座京城…

昌德宮의 下賜金 — 社會化

李王妃殿下와 王世子妃殿下씌옵서 特히 朝鮮女子敎育協會의 趣旨를 贊成하시고 眷顧하시와 金二封을 下賜하신 것은 昨日本報에 임의 報道하얏거니와 此에 對하야는 單히 敎育協會의 當局者뿐 아니라 實노 그 報道를 聞하고 見하는 者마다 一種의 感激을 스스로 禁치 못하나니 大槪 吾人은 此로써 그 무엇을 見하며 또 感하는가 昌德宮에서 依然히 朝鮮民衆을 愛顧하시고 그 前程을 爲하야 深慮하시는 것을 發하는 外에 비록 政治方面에 그 能力이 及치 못하나 社會方面에 多少間이라도 貢獻하고 努力하야서 民衆發達에 一臂의 力을 加하라 하시는 것을 感하는 外 다른 것이 아니로다 吾人은 敢히 金二封이 多하다 하지 아니하노라 그 金을 多하다 하야 此感을 抱하는 것이 아니로다 오즉 그 不自由하신 中에서 비록 些少한 金錢으로라도 懇曲히 그 女子事業에 對한 祝福의 同情을 表하시기 爲하야 從來에 업는 例를 開하시고 敢行하신 그 點에 對하야 無限한 胸裏의 激動을 受하나니 吾人이 이에 何를 言하리오 오즉 感激하고 感謝하야 그 意를 體하고 그 意를 遵함에 더욱히 朝鮮의 一般民衆을 爲하야 努力하기를 期함에 一層의 精神을 加할 것 뿐이로다 그러나 此際에 吾人이 平生에 所懷한 意見의 一端을 披瀝함은 決코 無益의 事가 아닐가 하노니

自此以後로 李王職이 더욱히 그 存在의 價値를 發揮하며 朝鮮民衆에 對한 光榮의 地位를 確保하는 道理와 方策이 何에 在할가 政治的 活動에 此를 求치 못할 것은 四圍의 事情과 時代의 形便을 觀하야 明瞭하며 此와 反對로 門을 閉하고 身을 退하야 社會로부터 一切關係를 絶하고 交涉을 斷함으로써 此를 期치 못할 것이 또한 그 事體의 本質上 自明한 理라 然則 그 活動할 範圍와 方面은 오즉 하나이니 곳 社會的 活動이 그것이며 社會的 方面이 그것이로다 이제 李王職의 立場을 考察하건대 그 財産으로 論之하면 朝鮮에 最大하며 그 地位로 論之하면 朝鮮에 最貴한지라 最貴한 地位와 最大한 財産을 持하면 他面에 또한 그 만한 責任과 義務(勿論 道德的)를 負함은 必然한 理라 할지니 一面에 福을 樂하고 他面에 그 義務를 行치 아니함이 엇지 良心의 許할 바이리오 或은 云하되 李王職에 對하야 義務를 云爲하고 道德을 論說함은 不敬의 甚한 者라 하는 者有하나 그러나 吾人은 그 位가 高한 故로 그 有가 大한 故로 더욱히 德을 施함에 厚할 것을 論하고 또 說하나니 古의 聖賢은 王者를 爲하야 그 行을 責함이 더욱히 甚하지 아니하얏스며 大人을 爲하야 道를 論함이 더욱히 切하지 아니하엿는가 吾人은 李王職에 對하야 最高의 道德을 要求하고 最大한 義務를 論述함이 單히 不敬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光榮과 尊嚴을 爲하는 所以인 줄을 知하노니

然則 所謂 社會的 活動 社會的 方面은 何를 意味함인가 簡言하면 政治以外의 모든 活動과 모든 方面을 包含하는 것이나 就中에도 敎育 科學 藝術 此三者에 對하야 特히 愛護를 加하기를 希望하는 것이니 敎育을 爲하야는 學校를 經營함도 可하며 學者를 養成함도 可하며 獎學的 民間事業을 助長함도 可하고 科學과 藝術을 爲하야는 文藝復興時代의 伊太利王公의 先例를 從하야 그 保護者로 自任함도 可하도다 大槪 民族의 價値를 向上하고 그 運命을 拓地에 開拓함에는 單히 政治만 必要한 것이 아니라 實로 如此한 社會的 活動이 그 本流 骨髓를 成한다 하야도 過言이 아니니 李王職이 眞實노 그 義務와 道德的 責任으로써 此業에 從事하면 그 表面上 名譽와 光榮은 姑舍하고 實地 民族向上의 本源이 되야 將來 歷史의 動力을 成할 것이라 地位를 保全하라 하야 保全되는 것이 아니며 光榮을 發揮하라 하야 發揮되는 것이 아니라 그 地位를 保全할 事業을 行함에 自然히 保全이 되고 그 光榮을 發揮할 價値를 藥함에 自然히 發揮가 되는 것이니 此로써 觀하면 李王職의 尊嚴을 云하야 無爲를 唱하고 그 處地를 稱하야 活動을 忌함은 오히려 그 尊嚴을 瀆하고 그 立地를 離하게 함이라 吾人은 不取하노라

今次 兩殿下의 處事를 謹察하건대 社會를 顧念하시고 民族을 愛護하사 用力을 期하심이 到底하신 것을 可히 知하겟스니 李王職有司는 맛당히 此意를 體하고 時宜를 察하야 그 光榮을 發揮함에 一層의 誠意를 表함이 可할가 하노라

生存權概論 (四)

二、生存權의 理論的 根據

近世國家는 原則으로 生産消費의 自由를 承認한다 換言하면 國民은 生存의 全責任을 自擔하는 것으로 認定한다 封建時代에 在하야는 君主는 그 臣下의 身命과 忠節을 擁保하고 그 生存을 保障하얏스며 都市에 在하야는 「길드」가 그 部員에게 職業을 保障하얏섯다 그러나 近世國家가 認定하는 營業自由의 原則은 根底로부터 此保障을 毁壞하고 이에 各人은 그 生存의 危險을 一身에 全擔하게 되얏다 近世國家가 保護하는 것은 財産과 身體의 安全에 不過하는 것이오 그 財産을 獲得하는 事에 對하야는 何等 保障, 保護가 無하며 또 身體의 安全을 圖함에 對하야서도 그는 오즉 他人으로부터 侵害가 有하는 境遇에 實行될 뿐이오 身體 그 自體의 維持方法에 對하야는 何等 保障이 無하다 他人이 暴力으로써 그 身體를 侵害하는 境遇에는 勿論 國家는 此에 對하야 保護의 途를 講求하나 그러나 飢餓가 그 絶大한 力으로써 此를 威脅하는 境遇에는 國家는 晏然히 何等保護의 責을 不負한다 一言以蔽之하면 近世國家가 與하는 所謂 保護 保障은 旣存하는 者에 限하는 것이오 將次 生하려 하는 것에까지 及치 못하는 것이다 我에게 身體가 有하며 財産이 有하다 我는 我의 財産의 所得으로써 我의 身體를 養育할 수 잇다 如此한 境遇에는 國家는 그 一切法制의 力을 擧하야 此財産과 此身體가 他人으로부터 侵害됨이 無하도록 懇篤한 保護를 與한다 그러나 그 反對로 我에게 財産이 無하고 따라 我의 身體를 養할 資料가 無하야 飢餓로 因하야 我가 斃하는 境遇에 至할지라도 이는 國家의 當然히 干涉하는 바 되지 아니한다 換言하면 國家는 그를 救濟할 義務가 無하고 또 그 生活資料 獲得에 對하야 保障의 責을 不負하는 것이라 然則 國家의 保護는 財産이 旣存하는 境遇에 그 財産과 그 報酬를 目的할 따름이오 勞働과 그 産物과의 關係라든지 欲望과 그 充足과의 關係라든지는 國家職分과는 沒交涉이다 保護의 目的은 要컨대 財産뿐이다 財産이 無한 身體의 保護安全은 空虛한 口實뿐이다 生存權의 理論的 根據는 何에 在한가 此空虛한 點을 充하라 함에 存하는 것이다 此를 經濟上으로 論하면 財産에 對한 報酬로써 分配의 原則을 定하지 말고 欲望의 充足으로써 分配의 根本原理를 作하자 함에 在하다 此意味에 在하야 生存權의 理論을 建設한 者는 英國學者 윌리암 곳드윈氏를 嚆矢로 한다 할 것이다 안톤 멩가ㅣ가 記한 바에 依하면 「모레리」「부리소ㅣ」와 如한 者도 亦 欲望으로써 分配의 根本標準을 定하여야 한다는 說을 持하얏다 한다 後에「카베」ㅣ出하야 그 有名한 著「이카리 航行記」中에「各人에게 그 欲望에 依하야 各人으로부터 그 能力에 從하야」하는 一句를 標榜하고 「루이 부랑」은 「各人으로부터 그 能力에 從하야 各人에게 그 欲望에 依하야」를 主張하게 되얏다 이제 「곳드윈」氏의 論을 考察하건대 氏는 그 有名한 著「政治的 正義」中에 財産制度에 三種이 有한 것을 論하얏스니 「第一」이오 또 가장 單純한 財産制度는 我가 所有함으로 因하야 他人이 所有하는 것보다 以上 大한 利益과 快樂을 生할 物件에 對한 我의 永久한 權利가 卽 그것이라」하얏다 안톤 멩가ㅣ는 此一節을 說明하야 말하되 「곳드윈」氏의 說은 要컨대 가장 詳히 利用하는 者 그 物件을 所有할 것이라 하는 것인데 此分配의 原則은 羅馬私法門에서 發成된 吾人에게는 一空想과 갓치 뵈이나 그러나 實地에 在하야는 모든 正當한 感念을 有하는 家族과 또 米國 共産黨 團體에서 實行되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하얏다 「곳드윈」의 思想은 後世 社會思想의 理論的 出發點이 되고 此로부터 各種 進步한 學說이 生하얏다 現今 經濟學의 立地로서는 生存權의 名辭를 아즉은 認치 아니하얏스나 그러나 實際에 在하야 國民經濟 最高의 職分으로 論述되는 內容이 生存權의 理論과 一致가 되는 것은 勿論이라 目下 가장 盛히 流行되는 「國民經濟學」의 一節을 記하야 그 一例로 할것 갓흐면 氏는 云하되 「國民經濟의 一般的 不變的 職分은 人類生活에 그 必要한 經濟上 基礎를 提供하고 此에 依하야 一切 高尙한 目的을 向하야 努力할 수 잇도록 함에 在하다 그럼으로 爲先 各人에게 적어도 外界文化의 最低限! 生存最低限! 人類的 生存을 與함에 在하다 이에 人類 多大數에 對하야 一切精神的 道德的 發達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하얏스며, 안톤 멩가ㅣ 또한 말하되 「生存欲望의 充足은 生存權의 根本이라」하얏다

婦人問題의 槪觀 (十)

一記者

九、歐洲大戰과 婦人問題 (續)

「엘렌케이」女史는 前述한 바와 如히 男子는 狹義한 愛國主義者오 偏狹한 國家主義者임으로 男子의 手에 依하야 社會가 組織되고 支配되면 人類의 幸福과 平和를 期키 難하다 그럼으로 人類의 平和와 幸福을 期코저 함에는 天生의 平和主義者인 婦人이 그에 干涉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軍國主義的 傾向乃至 軍國主義的 計劃에는 一切 反對하고 婦人의 그 天生的 平和主義를 實現하기 爲하야는 參政權을 獲得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오 또 婦人이 參政權을 得할지라도 男子同樣으로 偏狹한 國家主義를 執하면 何等의 效가 無할 것인즉 婦人은 어대까지든지 그의 本來의 平和主義를 發揮하여야 할 것이다 假令 子兒를 生함에나 그를 育함에 婦人은 그를 人類의 破壞者로 하여서는 不可하고 그는 人類의 建設者가 되게 하기를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戰爭에 依하야 幾十萬이라는 生命을 減殺한 各國家는 此減殺된 人口를 補充하기 爲하야 各種의 方法을 講하야 人口增殖에 努力하는 中이며 今後에도 此에 努力할지나 如此한 境遇에 婦人은 單히 子를 生함으로써 그 責任을 盡하얏다 할 것이 아니라 單純한 思想으로 하면 國家나 社會를 爲하야 益하다 함과 如한 것이 人類에 對하야 何等의 益할 바이 無하고 如斯한 無自覺的 生과 育은 오히려 二十年後에 今日을 다시 反覆하야 塹壕에 埋葬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지라 그럼으로 現在의 狹隘한 國家主義를 捨하고 넓히 世界主義的 見地로 一切를 考察하고 實行하여야 할 것이다 實로 今後 婦人의 人類에 對한 大使命은 此에 在한다 하얏다

女史는 以上과 如한 見地에서 婦人의 參政權의 必要를 主張하얏스니 此는 卽 戰爭否定論인 同時에 今後 改造될 新世界에는 戰爭을 根絶하기 爲하야 婦人은 그 本來의 平和主義를 徹底히 하여야 하겟다 함이다 그러나 如斯한 思想에 對하야 婦人은 오히려 好戰的이라는 理由로 反對하는 者도 不無하나 例를 擧하면 「쩰마、마이클ㅣ」氏가 그 著 「健全한 페미니즘」에서 婦人은 軍國主義者오 또 그러할 것이라고 論함과 如한 것이 곳 그것이라 하겟다 그 是非는 何如間 世界大戰이 「엘렌、케이」女史의 見한 바와 如히 平和思想을 婦人間에 一層 深切히 感케 한 것은 果然 事實이라 하겟스며 自此로 그 思想이 如何히 發展될가 또 그것이 如何히 事實化하야 出現될가 함은 가장 重大視할 問題이라 하겟다 上述한 바 모든 婦人問題는 專혀 歐米에 在한 現狀을 槪述한 것이나 現今 東洋의 그 狀態는 果然 如何한 道程에 在한가

吾人이 今에 目睹하는 바 中國이나 日本의 婦人問題는 歐米의 그것에 比하면 在來의 道德的 觀念과 其他 各樣制度에 關連되는 各種事情에 因하야 問題를 삼을 것이 업다 할 程度에 在하니 아즉 幼稚하다 할 것이나 그러나 이제 中國에 就하야 例를 擧하면 巴里에 講和會議가 開催되얏슬 時에 中國婦人의 一團이 巴里에 赴하야 一面에 自國使節을 激勵하고 他面에 一般同情을 集中하야 多大한 努力을 致하야 交際界에 大歡迎을 受한 것은 當時報道에 依하야 世人이 共知하는 바이며 또 日本人의 一例를 取하면 近來 各種의 色彩를 帶한 婦人團體가 發生하야 各히 그 向上과 發達에 努力함은 勿論이나 最近 華府會議 當時에 矢島女史의 一行이 同地에 赴하야 世界의 平和를 高唱하고 自國을 爲하야 莫大한 活動을 試한 것은 모다 婦人의 政治的 社會的으로 覺醒하는 一端을 表示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아즉 朝鮮에 在하야는 男女의 問題보다도 차라리 모든 人生으로서의 問題를 解決치 못한 今日이라 可히 擧하야 論評할 餘地가 無하나 輓近 數年來에 婦人이 漸次로 覺醒하는 傾向이 顯著한 것은 또한 事實이라 今에 一例를 擧하면 女子敎育會, 女子夏令會, 또 女子苦學生親睦會 等 各種團體가 生하야 各히 그 處地대로 女子의 向上과 發展을 爲하야 努力하얏슴은 婦人自覺의 一端을 證하는 것이며 또 現今 京城에서 婦人의 一團이 經營하는 東亞婦人商會와 平壤 鎭南浦에 設立된 婦人商會 等이 亦모다 婦人覺醒의 一端이라 하겟다 何故오 婦人이 口로 男女의 平等을 高唱하고 空想的 理論으로 參政權을 論議할지라도 事實上 그 生活을 男子에게 依賴하면 畢竟 그 男子의 支配를 免치 못하는 것이 自然한 勢인 까닭이다 그럼으로 婦人問題 解決의 唯一한 方法은 前에 「엘렌케이」女史가 主張한 바와 가치 母性을 特히 保護하는 範圍內에서 經濟上 能力을 充實함에 잇다 할 것이다 (終)

社告

一、分局의 名稱 錦山分局
二、分局의 管轄區域 錦山郡一圓
三、分局의 位置 錦山郡錦山面上玉里 六八番地
四、支局員의 職氏名 分局長 金顯俊 總務兼記者 柳海燮

右와 如히 直轄分局을 設置하옵고 一般業務를 取扱하오니 本報愛讀諸位 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 一切을 關係으로 直接交涉하시옵소서

東亞日報社 白

本支局記者 李園秀君은 今般 事情에 依하야 辭免하얏사오니 本報愛讀諸位는 如此 照諒하시옵소서

東亞日報 咸興支局 白

一、分局의 名稱 淸凉里分局
二、分局의 管轄區域 高陽郡崇仁面 壹圓
三、分局의 位置 京元線淸凉里 驛前
四、分局員의 職氏名 分局長 金先文 總務 張志洪

右와 如히 分局을 設置하얏사오니 官內에 居住하시는 本報愛讀諸位 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 一切을 交涉하시옵소서

東亞日報 高陽支局 白

蠶種 本社特製 白 一枚 金八十錢 代金引換絶對不應 前金送付 開山東亞蠶絲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五二九九番

梅毒 본원(眞療丸)은 이차도수를 맛추어 복용하는 방법에 의하야 복용만하면 남녀간 일이삼긔와 케반매독중상을 불론하고 독공류호치료와 백약이 무효하던지 수삼발하야 단근치 못하는 증이라도 일복에 단근되야 영불재발함 (상품한제 십환) 송료륙십오전 (보통한제 삼십환) 송료칠십오전

淋疾 본원(治淋回腸丸)은 남녀간 백방치료와 백약이 천허무하야 발근치 못하는 난치에 림질이라도 복약이삼시후에 효연 소변으로 코와 가래충갓는 실눈은 한부정한 물건이 만이 나오고 거근되야 평성광발치 안는 세계뎨일 희귀한 영약 비로소 발명되얏슴 (상품한케 칠환) 송료륙십오전 (보통한케 십삼환) 송료팔십오전 차이대명케는 세계뎨일 선케 주효여신하야 백발백중하오니 현대에 유행인 보증약으로 광고상 교언미어론도 채만대발하야 케환자들 미혹케 는 명칭뎐 약품으로 오인치마옵소서 금반 특히 광포키 위하야 주문서착 이십일인하야 더욱 특별히 광고덕으로 극렴경밀케 정하옵나이다 디방주문에는 자세한 병록피악가를 진송하나이 송요를 동봉하야 京城府紫園洞一九八番 濟衆醫院으로 주문하시면 곳부상난이 마심하야 뎔머사칭함

注意 地方特約店 志望者는 此際에 申請하시요

淋疾快治散 二十日分 十日分 本製造部 朝鮮商會 京城府授恩洞三十三番地 振替口座京城一〇三六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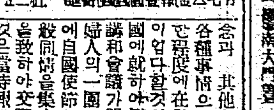
竹山安氏大同譜 始姓始祖竹山君子孫一同合譜事 收單本年陰七月末日內一齊納付 譜所京竹添町二丁目一四七番地 再月前本紙揭載事項如右改定

最新理想的發明品

貴紳士淑女와 老少를 勿論하고 讀書針工時에 此眼鏡을 着用하면 眼力을 補養하야 恒常 三十外라 眼光을 不奪할터이오니 一次試用하시옵 弊社에서 開業披露키 爲하야 上記貌型을 一千個限하고 廉價로 提供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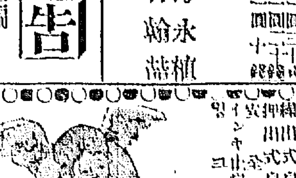
新式 天然水晶 老人眼鏡 金鍍 品目 / 地方注文에는 郵便料三十五錢以上을 先送하시면 郵便引換으로 付送함
玉은 造水晶 一號 二圓五十錢 / 二號 一圓五十錢
京城貞洞一番地 歐米輸入商 供諸社

靑陽苧 本商會가 開業以來로 僉位의 愛護에 依하와 業務가 發展됨은 感謝不已이오며 今般 通信販賣部를 特設하옵고 靑陽苧布(生、熟)를 多數貿易하와 地方顧客僉位의 便宜를 圖코자 하오니 陸續注文하심을 望함 忠南靑陽郡邑內
主任 王宗烈 靑陽苧布商會 通信販賣部
注意 注文하실 時에 品質 上中下와 價格의 標準을 大略指示하시고 (但 小包郵便으로 付送함)



普信 고무靴 營業品目 輕便靴 同 便利靴 同 (羽根式特製品 / 加方衣特製品 / 羽根式上等品 / 加方衣上等品) [illegible]
製造元 普信靴店 開城東本町三七番地 主任 方永植 林翰喆 特約店募集함 其他公賣市場八、松都、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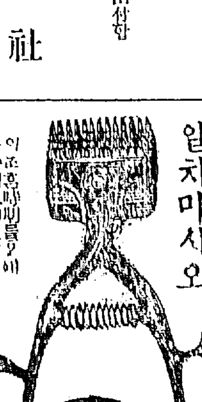
通信豫約廣告 醫學大家 洪鍾哲先生編 經絡學 全一冊 附 彩色別 銅人經一枚
本書는 我東醫學界에 空前의 新生面이로다 …
豫約規定 一、印刷部數는 二千部로 定함 一、頒布價金은 銅人圖附一部二圓五十錢 一、本書는 非賣品으로 豫約에만 頒布함 一、申込期限은 大正十一年五月三十日 一、發送은 申込順序로 郵便代金引換으로 付送함 一、先金은 不要하고 但 送料는 實費로 受함 一、豫約員이 定數에 超越할 時는 此를 謝絶함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啓文社 申込取扱所 京城府鍾路通二丁目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特價提供 弊店은 信用을 生命과 가치 아오니 一次試用하시압 京城府鍾路二丁目八 專門 一之商店

京仁線列車時間改正 來七月一日부터 普通及混合列車의 運轉時間을 整理及變更함

綿布及加工品 織造用單絲及合絲 裁縫用各種合絲 洋襪用染色絲 靑性曹達及染料 委託販賣及貿易業
◎特製漢陽白粉特約販賣店 京城府長沙洞八十七番地 三益商會 電話三四五九番 振替二〇二五番
但 地方에서 注文하시는 時에는 代金小包로 …



同胞여? 破天特價 잇지마시오 우리의 急先務가 … 自今으로 … 特價提供
[illegible]
理髮器商 萬榮商會 京城鍾路二丁目七六番地

고무바닥 輕便靴 고무바닥 便利靴 上品우단衣及加方衣 特約店募集 開城北本町 開城靴店

商標 善 甘紅燒酎 衛生飲料 人蔘原料 / 善 改良燒酎 佳良奇味 飲後無毒
本燒酒는 特히 白米와 精良한 麯子로 完全한 設備下에 製造한 것인바 從來의 燒酒와 異하며 今에 廣告的으로 廉價販賣하오니 一次注文試用하시옵
平壤府南門町四〇 池田醋釀造所
燒酒 販賣部 池商會 電話七五七番 振替口座京城三五六一番
工場 平壤七星門外箕林里 特約店及代理店募集

謹告 本人等이 洋靴店을 經營하옵기 爲하야 元昌洋靴店을 新設하옵고 前永泰昌洋靴店에 十有餘年間 洋靴原料에 從事하옵든 徐明九에게 弊店의 製造販賣를 專히 擔當케 하오니 前者 永泰昌을 愛護하시든 僉位께서는 右徐明九의 技術은 已爲斟酌하실 바이라 原料選擇과 製造優良하옴은 不必長陳이오니 一次試用하심을 切望하나이다
京城府鍾路通一丁目四十四番地 元昌洋靴店 振替口座京城三五九番 主 金源珠 金錫盛 徐明九
但 地方은 引換代金으로 卽速發送하옵고 當分間은 郵料를 自擔하겟사오니

海牙會議의 一難關

海牙會議에서 露國問題에 就하야 露佛間에 債務의 衝突이 有하얏는데 露國은 佛國의 提案을 一蹴하얏더라 (海牙電)

露委員態度强硬
佛國의 執政官的態度를 一蹴

露國委員은 聯合國委員과 將次正式會商을 遂코자 함에 當하야 衝突을 惹起하얏는데 露國再興問題의 審議를 劈頭에 行한다는 佛國의 抗議를 一蹴하야 佛國의 執政官的態度에 勝利를 得하얏스며 露國委員은 獨逸首席全權「리트뷔노푸」氏가 露國再興私有財産에 關하야 聯合國이 承認키 可함을 制限하면 再興問題를 審議치 아니한다고 聲明하고 尙且債務에 就하야는 別로히 委員會를 組織하야 其審議를 俟하려는 事를 提議하얏스며 又露國側은 對聯合國債權는 佛國委員會를 通하야 再興問題最後의 決定을 行할 事를 拒絶하얏다더라 (海牙二十七日發)

英對愛態度强硬

愛蘭問題에 就하야「쓰나ー로ー」氏는 現狀을 視察한 結果英國政府는 同問題에 對하야 强硬한 態度를 取하게 되얏는바「쓰나ー로ー」氏는 英國이 若强硬히「얼스터ー」를 援助하고 南部「얼스터ー」方面을 排斥하는 政策을 取치 아니하면 彼等은 反政府黨을 組織할지오「쓰나ー로ー」는 次期首相의 候補者로 指目되는 바「로이드죠ー지」氏의 最恐하는 人物이라더라 (倫敦二十九日發)

「떠불린」에 重大騷擾

「떠불린」에서는 今日早朝부터 軍隊의 大活動이 開始되엿는데 現에「오콘노어ー」氏가 領率한 不定規愛蘭共和軍이 占領中인 裁判所의 建物에 對하야 正面攻擊을 開始하려는 氣勢를 示하는바 愛蘭假政府는 短時間의 期限을 附한 最後通牒을「오콘노어ー」氏의 게 送하야 裁判所의 返還을 要求하고 愛蘭定規軍은 一切의 交通機關을 停止하고 組織的으로 武器의 製作을 始하얏는데 裝甲自動車病院車를 備置한 自由國軍의 一隊는 裁判所의 背後에 陣地를 定하고「오콘노어ー」軍은 路上準備를 嚴鎖하야 裁判所의 外部에 二條의 塹壕를 穿하고 鐵條網으로 防備를 行하며 屋上에는 機關銃을 排置하얏다더라 (倫敦二十七日發)

「獨立準備에 努力하라」
愛蘭假政府의 陳述書

愛蘭假政府는 陳述書를 發하야 曰「現在各處에서 勃發되는 과 如한 暴行은 直히 停止치 아니키 不能하도다 政府는 人民을 安堵케 하며 又自由의 諸制度를 設定하도록 決心하얏슴으로 此際에 市民은 宜히 政府와 協力하야 公安을 保障하야 愛蘭獨立의 手段에 突進하기를 求하노라」고 述하얏다더라 (倫敦二十八日發)

南北 愛蘭緩衝地帶

南北兩愛蘭政府는 最近騷動이 起한「페르미ー크」地方에 中立地帶를 設置할 事를 承諾하얏는바 成績을 見하야는「얼쓰터ー」國境全部에 도 適用할 듯하다더라 (倫敦二十九日發)

英政府信任投票

下院에서 殖民大臣「차칠」及首相「로이드、쪼지」兩氏는 政府의 愛蘭政策을 高調하야 愛蘭假政府의 出現을 見하얏슴으로 延期되얏던 最後通牒을 送하야 英愛條約을 尊重하야 政府의 對愛政策은 急轉的의 進行임을 發表하얏고 隨하야 英國下院의 形勢는 一變하야 英愛案에 對하야 七十五對三百五十二의 多數로 否決되얏는데 是는 政府에 對한 信認投票이라더라 (倫敦二十七日發)

獨逸內閣瓦解乎

「나테나우」外相暗殺은 帝政派의 陰謀이라 하야 議會는 暗殺事件으로 大紛亂을 惹起하야 結局「빌트」內閣은 瓦解되리라더라 (上海電)

暗殺者嫌疑者抑留 ＝前外相「나테나우」氏

暗殺嫌疑者十二名은 今에 도 尙히 抑留中이더라 (伯林二十七日發)

伯林市에 同盟罷業

各銀行及商店은 本日正午로부터 二十四時間示威同盟罷業을 開始하얏는데 此와 同時에 電車 汽車도 運轉을 中止하얏다더라 (伯林二十七日發)

米陸軍法案通過

上院은 來年度陸軍人員을 十三萬七千人으로 하는 陸軍法案을 協議會의 報告와 如히 可決하얏는데 右案은 旣히 下院을 通過하얏다더라 (華盛頓二十八日發)

上院「하이치」占領是認

二十六日上院議員이 一致로 米國의「하이치」占領을 贊成하얏다더라 (紐育二十八日發)

百廿五萬의 大盟罷
米鐵從業員、七月一日을 期하야

米국 鐵道從業員百二十五萬의 同盟罷業은 今에 確實히 實現코자 하는 形勢로 本件에 關하야 投票를 行하얏는데 鐵道賃金引下及從業規則을 承認함보다는 同盟罷業을 行함이 可하다는 傾向으로 從業員의 首領은 同盟罷業命令을 六月二十九日에 發하야 七月一日부터 實行할 旨를 通牒하얏다더라 (市加古二十六日發)

新移民法案提出
日本人及中國人에는 永住拒否

華盛頓選出上院議員「알써ー든、존손」氏는 本日上院에 新移民法案을 提出하얏는데 右案은 歸化權에 限하야 永住를 許可하려는 것인 으로 日本人及中國人은 拒否되엿다더라 (華盛頓二十六日發)

英에 條約 諒解成立

「메소포타미아」에셔 發電에 曰「푸잘」王과 英國統監「쏘ー콕쿠」氏間에 英「메소포타미아」條約에 關하야 完全한 諒解가 成立되얏다더라 (倫敦二十九日發)

奉直間妥協如何
奉天側直隸要求苛酷에 憤慨

旣電과 如히 東三省各省長은 奉直問題의 經過를 傍觀하고 何等의 決定을 行치 아니하얏스나 奉直妥協은 當分間解決의 望이 無하며 直隸側의 要求가 苛酷함으로 張作霖氏以下는 遂히 意를 決한 듯하며 各省議會에서 民選省長을 選出하며 奉天은 王永江、吉林(未明)黑龍은 史紀常氏를 選任할 旨를 報告하얏다더라 (奉天二十八日發)

妥協遂히 不成立 ＝奉直間의 妥協에 關하야

奉天에 在한 兩派의 全權은 連日鳩首協議하얏스나 遂히 不成立에 終하고 王宋의 兩調停使는 政府及吳佩孚氏와 協議키 爲하야 二十八日北京에 歸着하얏더라 (北京電)

奉軍側의 講和條件
歸北한 王、宋兩氏의 齎來한 者

王占元、宋紹濂兩氏는 二十七日山海關으로부터 歸着하얏는데 奉天軍의 提出한 左의 講和條件을 齎하얏더라 (北京二十七日發)

一、東三省의 完全自治
二、東三省地方收入(鹽稅、鐵道收入其他條約에 規程된 者를 除함)은 地方에 歸할 事
三、東三省監理는 中央官吏의 任命警察外에는 干涉치 아니할 事
四、東三省의 軍隊는 本司令이 總括할 事
五、差押中의 鐵道貨物은 條件을 附하야 返還할 事
六、直隸軍은 津楡로부터 北에 出치 아니할 事

黎總統威信이 蔑如

顏內閣은 早히 動搖되얏는바 黎總統의 威信도 徐總統의 末後와 如히 幾多의 命令을 發하얏스나 實行되지 아니하며 中央에 在한 政治問題도 黎總統과 閣員一部間에서 決定하야 曹錕氏의 事後承諾을 求함에 不過하얏스며 直隸省長問題와 如함도 曹氏吳氏共히 何等容喙치 아니하얏는데 此內閣의 動搖는 保定의 內訌에 基因되야 曹黎兩氏의 不一致한 所以라 曹氏部下將校의 大部分은 吳派의 王承斌의 게 向悉하야 直隸派의 前途는 宛然히 二分된 觀이 有하더라 (北京二十七日發)

李烈鈞孫文排斥

孫文派의 李烈鈞氏가 罹病하얏다함은 無根의 說이라 最近孫文氏는 書簡을 李氏의 게 送하야 武力的援助를 求하얏스나 李氏는 此를 不應하얏고 尙且許崇智、李烈鈞氏等은 特히 陳炯明氏와의 交戰을 不好하며 專히 陳軍과 妥協하야 孫文氏를 除外하려는 形勢이라더라 (廣東電)

章炳麟은 退位慫慂 ＝章炳麟、輔成氏等은

孫文氏의 게 左의 通電을 發하얏다더라 (上海電)
徐世昌氏가 旣히 服罪하얏슨즉 貴下도 前言을 履行하고 輿論을 從하야 野에 退하는 것이 得策이라 時局은 尙히 紛糾中이니 貴下는 上海에 來하야 吾等을 指揮하기를 望하노라

香山縣에서도 孫氏背叛 ＝孫文氏의 故縣

인 香山縣은 孫文氏를 背叛獨立하얏는데 奪略이 續行되며 商館은 陳軍의 게 略奪되얏다더라 (廣東二十八日發)

孫文氏 上海到着

孫文氏는 便船으로 二十七日上海에 到着하얏다더라 (上海卄八日發)

新內閣의 初難關

行政整理에 對하야 市來藏相은 緊縮論을 主張하얏는데 閣僚는 此에 反對함으로 新內閣은 最初의 難關에 逢着하얏더라 (東京電)

軍縮馘首에 將校八百

陸軍軍備縮少費節額은 約一億三千萬圓內外로 淘汰된 人員은 一萬에 及할 터인바 此中將校八百名에 將官級三十九名이며 大將一、中將七、少將十七、機關中將一、同少將五、軍醫少將四、主計少將三名이 될터이라더라 (東京電)

大公使更迭乎
三使陸續歸國

駐佛石井大使는 來十月歸朝할터이며 又林駐英大使는 明年二月頃和蘭公使田村氏太氏는 近日海牙發歸朝의 途에 就할터인바 本年內에 在外大公使의 更迭을 見하리라더라 (東京電)

駐墨公使更迭

外務省通商局長古谷重綱氏는 墨西哥公使로 昇進하고 英國大使館參事官永井松三氏는 通商局長으로 旣히 內定하얏슴으로 外近々發表될터이며 其他定期昇進商務官等도 異動이 有한바 七月一日에 發表할터이라더라 (東京電)

嚴重抗議決定
頭道溝事件으로

間島頭道溝의 日本領事分館이 二十八日未明五百의 馬賊에 게 襲擊되야 分館其他를 燒失한 事件에 對하야 政府는 嚴重히 中國政府에 抗議하기로 決定하얏더라 (東京電)

暗殺續出과 英米爲替崩落

英米爲替는 獨逸「라테나우」外相暗殺에 關聯하야 及英國「우」元帥暗殺의 歐洲政界의 不安定으로 一仙四分一로 續落하야 爲替界는 大變動을 生하얏다더라 (紐育電)

最近東京金融

東京交換所組合銀行의 二十四日現在週報에 依하면 預金合計는 十七億九千八百萬圓으로 前週에 比하야 二千三百萬圓의 增加를 示하얏고 諸貸出合計는 十九億九千八百萬圓으로 前週에 比하야 一千百萬圓이 增加하얏스며 金銀有高는 一億二千二百萬圓으로 前週에 比하야 六百萬圓이 增加하얏다더라

連絡協定의 結果

中東滿鐵連絡運賃協定으로 因한 長春會議는 二十六日에 終了하고 二十七日에 調印하야 二十八日에 發表하얏는데 問題의 中心인 從來의 滿鐵特定割引은 全廢하고 哈爾賓以北의 單價貨物에는 一噸三圓五十五錢의 割引을 行하며 其數量約七十二萬噸의 前後로서 百萬圓을 交付하는바 其代로 東部線의 運賃一噸에 對하야 約一圓二十錢의 引上을 行케하얏는데 是가 露國時代의 南滿을 威集中主義의 東鐵政策을 打破한 것이라 하더라 (長春二十八日發)

物價引下를 中心問題로 六大商議協議

六大商業會議所는 去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東京商業會議所에서 協議會를 開하고 二十七日부터 開會할 全國商業會議所聯合會에 提案할 左記各問題에 就하야 種々協議하고 午後二時散會하얏더라 (東京電)

一、營業稅撤廢實行에 關한 件 (大阪提出)
二、物價引下、事業振興에 關한 件 (六商業會議所提出)
三、國費節減에 關한 件 (大阪、神戶、名古屋、京都提出)
四、物價引下方法에 就하야 此의 對策을 政府에 要望할 件 (神戶提出)
五、節約期日을 定하야 每月二回의 節約期日로 하야 全國民에 게 此의 實行을 宣傳할 件 (神戶提出)
六、國費節約을 主로 하야 物價引下에 矛盾치 아니하는 趣旨下에 稅制整理의 實行을 臨時財政調査會에 要望할 件 (岡山提出)
七、國費節約、物價引下、生活改善、稅制整理에 關한 調査及廢止等에 關하야 東京商業會議所聯合會內에 常設機關設定의 件 (岡山提出)
八、商工業關係法令에 關한 件 (東京提出)
九、商業會議所聯合會規約改正의 件 (長崎提出)
十、同上 (大阪、名古屋、神戶、京都提出)
十一、絹綿毛織丈尺明記에 關한 件 (長崎提出)
十二、銀行營業時間延長에 關한 要望의 件 (同)
十三、國際商業會議所加入의 件 (橫濱提出)
十四、汎太平洋商業會議代表者派遣의 件 (東京提出)

米價前造
不當한 昨今市勢

米價今後의 推移는 天候如何에 在하다 할지나 更히 看過치 못할 事는 政府의 外米方針과 殘存米의 程度如何이라 政府는 今年의 外米輸入方針은 三百萬石輸入을 標準으로 하얏스나 六月上旬까지의 輸入高는 三百十九萬石에 達하야 結局十九萬石의

輸入 超過가 되얏고 一方在米高를 見하면 目下大阪의 在米는 一百二萬石에 達하얏는데 此는 例의 石井市勢의 結果地方米가 大阪에 集注함이 原因인바 最近에 多少地方에 逆送되는 中이나 大阪의 一個月消費高를 十五萬石이라하면 十一月에는 新穀이 出廻할지나 七、八、九、十四個月間消費高는 六十萬石으로 四十餘萬石의 餘剩을 生할지라 本年一月以來物價는 大概漸落步調를 示함에 不拘하고 但米價는 旱魃不作을 豫想하고 一般物價趨勢에 逆하야 漸騰步調를 示하얏는데 在米及

外米 輸入狀況으로 察하면 四十圓以上의 市勢를 現함은 全혀 不自然的現象이라 云할지라 爲先諸物價와 權衡上으로 云할 時는 米價는 最高四十圓最低三十圓이 正當하다 할터인데 昨今의 市勢는 大勢逆行의 觀이 有하도다 特히 日本은 朝鮮과 正反對로 旱魃의 年은 大槪豐作이 常例인바 此는 水利灌漑의 便이 有하야 多少旱天이 繼續하드라도 植付不能에 終함과 如한 事가 無하고 雨量이 過多한 年은 不作에 終함이 常例이라 然而

植付 當初에 一般的으로 雨量이 少하야 此를 部分的으로 見할 時는 北鮮及西鮮地方은 雨量이 大槪適順하야 植付를 完了하얏스나 南鮮地方은 雨量이 少하야 植付가 不能하얏는데 今般의 降雨와 今後에도 相當한 降雨가 有하리라 한즉 植付에는 別로 困難이 無하다 할지며 朝鮮에서는 七月十日까지 植付하게 되면 關係가 無하다 한즉 今年朝鮮의 米作은 平年作이라 見함을 得할지니 此等을 綜合할 時는 米價의 前途는 悲觀할 必要가 無하다고 某當業者는 語하더라

昨年中 麥優良種普及狀況

大正十年의 大小麥優良品種普及及狀況及栽培成績을 調査한즉

大麥優良 品種의 普及面積은 七萬九千百四十七町步로서 總作付段別의 約一割을 占하고 其收穫高는 九十三萬四千二百五十石이며 一段步에 對한 收穫量이 一石一斗八升인바 前年에 比하면 面積에 一萬九千九百四十三町步收穫高에 三十三萬八千九百四十三石의 增加를 示하야스며 每段當收穫은 在來種의 九斗一升七合에 對하야 二斗六升三合의 增收이오

小麥優良 品種의 普及面積은 一萬八千八百十九町步로서 總作付段別의 五分을 占하고 其收穫高는 十四萬六千百三十一石이며 每段當收穫量은 七斗七升七合으로서 前年에 比하면 作付面積三千五百三十六町收穫高三萬三千二十四石의 增加를 示하얏스며 尙且每段當收穫은 在來種의 五斗九升八合에 對하야 一斗七升九合의 增收이라더라 (總督府殖産局)

昨年雜穀作況

大正十年의 雜穀作況은 北道地方에는 播種當時부터 降雨가 少한 故로 發育이 充分치 못하얏스며 又中以南地方에는 播種當時는 大體降雨의 分配가 適宜하야 發芽生育이 良好하얏스나 六月부터 七月中旬에 亘하야는 氣溫이 低下한 故로 作付의 短縮을 繼續하야 八月에 至하야는 全土에 亘하야 天候恢復되얏스나 作況이 不良하얏스나 一般的으로 前年에 比하면 作付段別이 增加되얏슴에 不拘하고 其收穫高는 稗黍等을 除한 外에는 漸減少하얏더라

金利引下不能
井上日銀總裁談

最近歐米의 金利가 引下되얏슴으로 日銀에서도 世界金融의 大勢에 順應코저 考慮하리라는 說이 有한듯하나 此는 各國의 實狀을 未知하는 者의 言이라 英國과 如한 는 不景氣의 極에 達하야 目下의 失業者가 二百萬人이며 各種工場은 閉鎖되야 銀行은 頗히 資金이 潤澤하야 其處置에 苦心中임으로 此의 關係로 金利의 引下를 行케된 바이며 又亞米利加는 貿易其他의 關係로 英國과는 特殊한 關係가 有하며 特히 經濟界는 一般世人의 想像함과 如한 好況이 아니오 不得已事業의 整理緊縮을 行함에 不過한바 日本은 前述한 兩國과는 經濟事情이 相異하야 事業資金은 益々其必要가 有하야 各銀行은 貸出을 警戒하는 實狀에 在하며 政府는 緊縮方針을 取하얏슨즉 此際에 財政을 緊縮하야도 物價는 直히 下落치 아니할지오 又購買力도 減少치 아니할터인즉 此時에 金融業者는 急히 只方面으로 態度를 變한다 함은 時勢에 鑑하야 不能하리라 思하노라 (東京電)

朝鮮全道 農業者數

戶數二、七一六、九四九
人數一四、四〇五、五三四

朝鮮總督府調査에 依한 大正十年末의 農業者數를 聞한즉▲朝鮮人二百七十萬五千五百三十四戶人口千四百三十六萬七十六人▲日本人一萬二百八十七戶人口三千九百八十一人▲中國人千百二十一戶人口四萬一千四百六十一人▲其他外國人七戶人口十六人合計戶數二百七十一萬六千九百四十九戶人口千四百四十萬五千五百三十四人으로서 此를 經營狀況으로부터 觀하는 時는 (一)非業者戶數一百二十五萬六千九百二十九戶 (二)地主九萬七千五百五戶 (三)自作五十三萬三千百八十八戶 (四)自作兼小作九十九萬五千九百七十六戶 (五)小作九十九萬二千百八十八戶이며 尙且各道別分布狀況은▲朝鮮人에는 慶尙北道의 三十三萬二千六百三十一戶에 百七十六萬三百五十이 最多하고 全羅南道의 三十二萬九千六百八十一戶百六十九萬二千六百九人 慶尙南道의 二十七萬五千百三十五戶百四十五萬七千三百人京畿道의 二十四萬一千七百十六戶百二十七萬三十八人等의 順序이오 咸鏡北道의 六萬八千二百五十五戶四十三萬五千八百七十七人이 最少하며▲日本人은 慶尙南道의 二千十八戶八千六百九十一人이 最多하고 全羅南道의 千七百九十戶六千八百三十六人 京畿道의 千六百九十戶千九百十六人이 此에 次하며 咸鏡北道의 三十六戶百十四人이 最少하고▲中國人에는 京畿道二百二十戶八百四十七人이 最多하고 平安南道二百十六戶八百五十五人 黃海道의 百三十一戶四百七十七人이 此에 次하며 江原道의 十戶二十八人이 最少한바 今에 此를 前年末에 比較하는 時는 朝鮮人에는 四千百二戶八千三百八十人이 減少하고 日本人에 七十七戶五百九十三人이 增加하고 中國

財務局長利田氏 任命在邇

總督府財務局長河內山樂三氏辭任後任에 就하야는 從來總督府內에서 銓衡中이나 總督府內에서는 前利田稅務課長으로 內定하야 本人의 承諾도 得하얏슨즉 近々同氏任命이 有하리라더라

海銀組合加入 近々決定乎

海東銀行에서는 從來京城組合銀行에 加入코자 運動中이더니 當局者間에는 時機尙早라는 意見이 有力하야 正式으로 協議함에 未至하얏는바 最近에 至하야 漢城銀行에서 各方面으로 斡旋한 結果朝鮮銀行의 諒解를 得하야 近々組合銀行에 加入하고 手形交換에도 參加하리라는데 同行의 當初業績은 前期에 比하야 良好하야 利益이 一萬三千圓에 達하얏더라

郵便物遞送開始

遞信局에서는 豫히 懸案中이든 松汀里光州間鐵道는 七月一日부터 開通하게 되얏는데 遞信局에서는 鐵道側과 交涉한 結果上下六回列車에 郵便物을 搭載하기로 하야 同方面의 郵便物은 迅速되야 一般公衆의 利便이 多하리라더라

辭令

六月二十八日附로 左의 辭令이 有하얏더라

總督府京城高等商業學校講師 年俸 服部直市
獨逸語、獨逸文學及獨逸語敎授法研究키 爲하야 滿二個年間獨逸國及英吉利의 在留를 命함
同公立實業學校敎諭 平野吉三郞
補光州公立農業學校敎諭 西崎哲郞
總督府事務官 同技師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illegible]
大正十一年七月十日부터 同七月二十七日까지 開催하는 林野業技術員講習會講師를 命함

消息

▲藤本源市氏 (京畿道警察部高等課長) 二十九日東京出張約三週日後歸任豫定

橫竪說

▲日本의 西伯利出兵에는 二千의 生命과 六億의 金錢을 費하얏다 한다 內로는 國民의 反對議論의 困窮을 招하고 外로는 露人의 怨恨、各國의 惡感을 買한 外에 所得이 何物인가▲浦潮의 一派는 此에도 오히려 覺醒치 안코 今番尼港虐殺事件의 賠償으로 樺太의 北半部를 取得하라는 野心이 有하나 外國의 攻擊을 恐하야 食指만 動할 뿐이라는 風說이 잇다 日本을 誤하는 者는 果然何物인가▲東京某新聞의 報道를 보면 景福宮의 結構輪奐한 純朝鮮式宮殿의 前에 殺風景의 洋式總督府廳舍를 建築하는 것을 朝鮮人이 不快히 思한다고 齋藤總督은 朝鮮人이 此建築物에 對한 快感을 起케 하기 爲하야 會議室의 壁을 美麗한 諸로 裝飾하고져 某畫家의 게 意匠一切를 依賴하얏다 한다▲아모리 美術展覽會에서 獨立運動關係者의 出陳品을 買入하고 日鮮融和의 促進에 偉大한 效果가 잇섯다고 可笑할 日鮮自讚에 奔忙한 總督府當局者이기로 설마 總督府의 壁畫로 此日鮮融和를 圖하랴 한다 하면 此는 誹謗할 뿐일가 假之者誤가 아닌가

商況

(五月廿八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銀概況 (五月廿七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日本金利及市況 (五月廿八日現在)
金利 (一錢單位) 東京 大阪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廿九日
枚數 三九〇、四
金額 一九二〇七、一六七

橫濱生糸
現物 一二二〇圓
當限 一、八六三
先限 一二〇六〇

外國經濟電報 (五月廿七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 [illegible]

大阪三品 廿九日前場

限月	寄付	大引
七月	納會	納會
八月	二六六、六〇	二六六、一〇
九月	二六一、一〇〇	二六〇、八〇〇
十月	二五九、〇〇〇	二五九、六〇〇
十一月	二五六、五〇〇	[illegible]
十二月	二五五、一〇〇	二五四、四〇〇

京株賣買高

廿九日의 京株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一千六百七十枚
乙部 一百九十枚
短期 九百枚

株式市場 京取市勢

二十九日京取氣配는 京取收益問題가 依然決定되지 못하야 甲論乙駁이 不一하니 前日小所良好한 步調를 迎한 京取는 逆하야 人氣不振하야 七十五圓臺에서 當分間保勢할 模樣으로 無味하고 安東은 納會大入催되야 立會하니 短期安取는 二十八圓에 付하야 五十錢에 止하고 仁取新은 六十一圓九十錢에 一日成立되얏스며 大新은 九十圓九十錢으로 閉하게 新은 九十四圓九十錢으로 閉하고 ...

京株賣買價 (廿九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取引 (廿九日)

株名	前場	後場
安取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各地春繭時勢

總督府入電에 依한 各地春繭時勢는 如左하더라
二十五日 平南順川에서 二等繭一石(乾繭)에 對하야 交白繭八十七圓으로 總數量三十二石의 賣買有하고
二十七日 黃海道新溪에서 二等繭一石(乾繭)에 對하야 交白繭八十六圓으로 總數量九石의 賣買有하고
二十七日 黃海道金川에서 二等繭一石(乾繭)에 對하야 交白繭九十一圓三十錢으로 總數量二十石의 賣買有하고
二十八日 黃海道遂安에서 二等繭一石(乾繭)에 對하야 交白繭八十八圓七十錢으로 總數量八十石의 賣買有하얏더라

穀信現信上場近

京城市場에서는 豫히 京城穀信及現信會社兩社株式의 上場許可를 當局에 申請中이든바 當局에서는 第一回拂込終了前에는 絶對로 不許可한다 하야 許可指令을 受치 못하얏스나 兩社共히 第一回拂込를 終了한 後 不遠간 上場實現이 되리라더라

穀物組合役員會

京城穀物商組合에서는 昨日午後六時부터 南米倉町京城取引所樓上에서 役員會를 開催하고 決算其他를 協議하얏는데 穀物商取引所設備에 關한 件과 今回來京의 地方穀物商에 依하야 良好한 結果를 期하얏더라

穀物市場新稅

六月十六日附京畿道令으로 外地方稅의 改正을 行한 結果穀物現物市場의 賣買高에 對하야 萬分의 六으로 徵收키로 되얏는 바 七月一日부터 實施하리라더라

京城穀物標準價 [illegible]

京城綿絲布標準價 [illegible]

紙物時勢 [illegible]

健腦神藥 … 消風丸 … 壽山藥房

萬全部交換 … 喉痛의特效

病中에病 … 解說者 … 團成社

優良種蜂 王蜂 ◀大特價提供▶

純良 淸蜜(진꿀) 半島養蜂園

全凉藥 … 濟世藥房本舖

三日의同盟絶食
京城監獄政治犯百廿名
옥졸의학대와빈々한감식으로 정치범박이십명이삼일간절식

경성감옥에서 밥금복역중인 정치범인수백명은 수일전부터 간수의학대와 무리한 징벌(懲罰)에 견대지못하야 맛츰내식사를 거절하고 사흘동안 절식동맹(絶食同盟)을 실행하얏다는 풍설이 잇는데 절식동맹에 참가한 수인에게서 그의친족에게 나온 소문에 의지하면 감옥에서는 무지한 하급간수(下級看守)의 보고한장만밋고 수인의청원을 조사하지도아니하고 무리한 처벌을하는일이 만타는데 그레로는 최근에 목욕실에서 두사람압헤 한개식주는 대아를병자外지가차 쓰게하야 위생에해로올뿐더러가잇슴으로 세수를 안켓다하얏더니 부장과 간수들이 무수히따린후나흘동안감식(減食)을 한일이잇고 또수지는 반장식밧게아니줌으로 왼장을달나한일이 잇섯더니 그러한 죄로 사흘동안의 감식을하야스며 기타 여름이되야 날이더워감사록감방(監房)창을더욱꼭々다두어서 숨을쉬일수가업스며 감방이터지도록 사람을만히너허서 도모지 견딀수가업고 정치범에게 서취도 드려주지아니하며 음식도거의 콩만살며줌으로 이와가치 학대를바들수는업다하야 뎐옥(典獄)에게 면회를 청하얏더니 면회를거절함으로 지난십오일부터 정치범일동은 일을하지아니하고 인하야 절식동맹을하게된것이라더라

參加者는百廿名
십팔일아츰부터사흘동안 평양에서온정치범이절식

이에대하야경성감옥의리모뎐옥(關本田典獄)은말하되 그런일이잇슨것은사실이외다 그것은 지난십팔일부터 평양감옥에서 옴겨온정치범 중에서 밥을아니먹겟다하야 차々다른방에잇는 정치범들까지 참가하게된것인데 밥을거절한 사람은 백팔십여명식 두단일으로 보다 일백이십명 가량이오 십팔일아츰부터사흘동안을계속하얏스나 그후에는 그들도마음을돌니엇로 지금外지밥을먹기 시작하야 지금外지아모일이 업소 이번에 절식을 한정치범은 모다평양감옥 에서 옴겨온사람인대 귀보에도 임의 보도한바와가치 그감옥에 서는 거번에도 이와가튼 소동이잇섯슴으로 그곳에서하든 버릇을이곳外지가지고 온듯하오

近因은減食인가
백명의정치범에게 삼일흡은오일감식

이와가치 뎐옥이사실을 인뎡합을뜻고 긔자는 다시그와가치 절식까지하게 된원인은 무엇인가 하고물은즉 그것은아모 리유도 업시그들이 너무케각가 마음대로만하랴하야 일도잘하지 아니함으로 공연한불평만 함으로감옥에서는 징벌을하기위하야 약백명에게흡은 삼일흡은 오일간의 감식을식히엇더니 그것이 원인이되야 밥을아니먹겟다고 한것이오 한다

絶食은自由放任
『쌀갑이고등한때에여시무방 린모면뎐옥의몰인정한태도』

사람이살자면 자유로운 세상에 잇서々던지 흥은애성의 디옥이라하는 감옥에잇서々던지 먹지 안코는 살수업다함은 누구나다 아는바어니와 일백이십명의 정치범이 사흘동안먹지로 밥을아니먹고 굶엇다함은 실로중대한 일이라 이에대하야 당국자의 처치는 엇더하얏는가 린모뎐뎐옥은다시텅々한얼굴로말을계속하되「그와가치케고집대로만 하겟다는 수인에게는 감옥에서도 엇지할수업서 내어버려 두엇소 더욱히 쌀갑과일반물가々 고등한이때에 케가먹기를 실혀서야 니먹겟다는것이야엇지하겟소 차라리 밥주지기전부터 몃사람은 밥을아니먹겟다고 미리 통지를 하야주엇스면 감옥에서도 매우 편리할것을 아모소리도업시 잇다가 밥을가저가면 아니먹음으로 감옥에서는 도리혀 일이복잡하고 귀치안케지내엇소」하며 그의말하는솜씨대로만하면 그감옥에잇는 사백여명 정치범전부가 절식동맹을 하얏스면 쌀갑이남아서조흘뜻이말한다

댱로교회미순회
(긔사참조)

平壤監獄에도 죄수의대불평

근일 평양감옥(平壤監獄)에서 복역중인 죄수 이천여명중에는 일긔가 점々더워지고 온갓병이 느러감을따라 매일압흠을 다토아 그감옥 중교뎐옥(中橋典獄)을 면회하고 병든자의게 약(藥)을 주기를 거절함은 무슨일이냐고 질문하며 불평이 느러가는 중이라는데 며개죄수들사이에 잠기여잇는불평이란 어느때 업는것은아니지마는 현재뎐옥 인 중교씨가부임한이후로는 죄수에대한 처분이비교뎍 관대하야 어느죄수를 물론하고 사소한불평이라도 잇슬때에는 곳면회를 허락하야원하는바를 드러주나 오직부하에잇는간수들의 불만한처치로 매양죄수의 원망을사고 불평을품게한일이 얼마전에도 잇섯스며 동시에본보에도보도한바어니와 근일에이르러는 불평는 동감옥 위생계(衛生係)에서 병든 죄수가약을청구하면 소위진찰 이란것은 하는데뻔이요 다만々요시다고만 하야내여보내임으로 병든 고치여 볼수가업스며 위생계에서 병이 입다고 진단이되는때에는 당번간수에게 애매한처벌을 밧게됨으로 인하야 설상가상으로 압흔가온데더욱 고로옴을 못이긔여 불평이매우놉다더라 (평양)

平南地方賊警
겸에서잠자다가 실은물건을일허

근일평남디방(平南地方)각처에는절도(窃盜)의출몰이빈번하야 도처에피해자가 다수 하다는데 평남덕천군 잠도면대평니(德川郡蠶島面大坪里) 조승원(趙承元)은맹산북창(孟山北倉) 디방에서마포(麻布)오십필을소구루마(牛荷車)에싯고출발하야지난 이십오일밤송 대동군부산면 화곡리(大同郡釜山面花谷里)에당도하야 신작로길가에 짐실는구루마를 그대로멈추고 구루마엽헤서잠을자고 잇섯는데 밤은몃시나되엿든지 엇던자가 구루마에실은마포·오십필중에서 다섯필만길거리에 내여버리고 그밧게는그림자도 업시전부 도적하야가지고 도망하얏슴으로 약간한사건을밧고집을운반하든조승원은 눈이뒤집혀서 부근화곡경관주재소에 수색하야주기를 청하얏는데 아직발견치 못하얏스며 일반이 주의할일이라 더라 (평양)

問題되는敎會學校
당로파미순회에진정사지 문데히결은칠일오일전에

미국북장로회 미순회년회(米國北長老會美巡會年會)는 례년에 의하야 지나간이십오일부터 시내남대문안 레배당에서 그년회를열고 전조선각디에잇는 미국선교사 남녀이백여명이 모히여 일년간전도한선교(宣敎)의보고와그선교회에서 경영하는각 중등학교 에대한 상황과 기타여러가지 의론이 잇다는데 이에대하야 일반이특별이 주목하는바는 당국으로부터 신교육령(新敎育令)이발포되자그선교회에서 경영하는 각중등학교는 그내용이빈약 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교육 방침이 시대에뒤진 뎜이적지안키 때문에 요사이분규중인평양 숭실학교(平壤崇實學校)를위시하야 각디에잇는그 선교회의 각중등학교는 동맹휴학(同盟休學)이니무엇이니하야 교육계의 불상사가 련철 날이업슴으로 그학교 당국자들 도깁히 생각한바가잇서서 이번 미순회년회를 기회로하야 각학교교댱과 선생들은 외국의 재단법인(財團法人)을만들어달나고 각학교대표자가와서 진정서(陳情書)를데출하고 평양숭실학교에서는 학생편의대표자 外지와서 렬심운동중이라는바 이에대하야 미순회대표 고언(高彥)씨는 말하되「아직모든일을 의론중임으로분명히말하기 어렵습니다 중등학교에대하야는 엇재던지 원만한 해결이잇슬줄로 압니다 우리도 시대형편 을 모르는바이 아닌즉 할수잇는데外지는 시대의형편을 참작하야 잘되도록할 모양이외다 여러학교에서 대표자가왓다고하나 그것도 아직 말할시긔가 아니외다 조만간 일뎡이면 폐회가될모양인즉 그때가되면 자세히알것이외다」 하고 매우침입을 회피하더라

女子大學計劃
임의터外지정해 실현는일이년후

이번 남대문안레배당에열닌 북장로회미순회(北長老會美巡會)는 장로교회와감리교회(監理敎會)에서 서로 련합하야가지고 몃해전부터 숙뎨(宿題)로두고 연구하든 조선녀자대학(朝鮮女子大學)을설립코자한다는데 그대학은 조선고래의미풍(古來의美風)을 토대로삼고 그우에 서양문명(西洋文明)을 수입하야 시대와가치 여개를것고 나가랴는 조선녀자에게 고등뎡도(高等程度)의 학문을 배워주고저한다하며 그대학의 터는 고양군연희면신촌리(高陽郡延禧面新村里)에잇는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부근 으로 임의뎡하엿다하며 또대학의교사(校舍)라든지 내용이라든지엇던것을 물론하고 할수잇는대外지는 완전히하며 불작뎡이라는데 하여간 조선녀자 의장래를 위하야 하례할일이며 그 실현될시긔는 아즉지세히 알수는업스나 일이 원만히 진행만되면 일이년내에 되리라더라

◇在外同胞慰問會◇
花環에凝結한熱誠
당성군위문강연회의성황 재내동포의단발하는각성

이십칠일오후세시 송정리(松汀里)역外지 출영한 월평학교(月坪學校)와그외세학교 교당과합창대의당성(長城)역에도착하얏는데 뎡거장압에는 각학교의 생도와 각단데의 회원약이천명의 출영이잇섯스며 비시월평학교 안에서일행의게 화환의증여 식이잇섯스며 계속하야그곳에서 각단데주최하야 화영회를 열고 당성청년회당리치학(李致學)씨의환영사외송진우(宋鎭禹)씨의답사가잇섯스며 아홉시부터 월평학교의 운동장에서 강연회를 여럿는데 뎡각이되기전부터 답지한 약사천명의청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엇는데 리영호(李英浩)녀사의주악과류긍덕(柳肯德) 림덕진(林德眞)두사도의창가로써 개회하고월평학교당김시중(金時中)씨의개회사가잇슨후 열한시 外지 각연사의설명을 마치고 월평학교 녀학생의청아한위문가(慰問歌)합창중에 회원을모집하야 일백삼십인이 상의응모가잇섯고 오전두시 外지 두시간이상의강연을 행하얏는데 당일에참가한 인사중에는 시대의변천함을깁히씨닷고 새로히 머리를깍근사람이 이십인이상이나 잇섯더라 당성군에는 사립학교가열세곳이나잇서 교육이 매우왕성한곳이며 물산은모시와 조희가주요한것이며 이곳공영회(共榮會)는소작인구제되 목뎍으로설립되얏다하더라 위문회를 후원한단데는 長城靑年會、共榮會、振興會、基督敎親睦會、勞働夜學會、月坪學校、基督敎會敎育會、森北靑年會、森北義塾、四街里學校、三一學校、普通學校、藥水學校、異龍學校、養英義塾의여러단데이며 강연회당 에는 환영의 록문에만국긔가 펄々날리더라 (당성뎐보)

馬賊은一時退却
령사관과우편실을태이고 일본인두명을죽인후퇴각
頭道溝襲擊事件詳報

재작이십팔일 새벽 간도두도구(頭道溝)디방에다수한마적이침입하야 일본령사관과 밋시가에 불을노코 사람을 살해하얏다함은 작보에보도한바어니와 그상세한 뎐보를 보도하건대 그마적대는 지난이십팔일 오전세시에 돌연히 일백칠십명이침입하야그데일대(第一隊)는 그곳일본령사분관 과 무긔창고에 불을노아 무긔전부를 태여바리고또그령사관우편실(郵便室)에 불을노아 태여바리엇스며 데이대(第二隊)는중국인시가를습격하야 삼사처에방화한후 동오전아홉시반에 북쪽산간으로 몰녀갓다는데 사상자중 지금外지판명된자는 령사관의교본순사(橋本巡査)와 그곳에사는일본사람하변구장(河邊久藏)두명이요우편실주임강림(岡林)모가중상을당하얏스며 또그외에 다수한경상자(輕傷者)가잇스며그날오전아홉시에 그마적떼들이 퇴각할때에 탄약(彈藥)과 기타무긔를운반식히랴고 조선사람 수명을 부뜰어 갓섯스나 그날오후에 다도라왓다하며 경비로는 지금중국관헌과 또령사관순사가 엄중히경비하는중인데 그마적단은 령사분관을습격할때에 류치장을 파괴하고 가두어두엇든 강도살인범인(强盜殺人犯人) 네사람을노아 바리엿다는데 그중에는 한사람의마적이 쉬여잇섯다한즉 이번에마적단이 그디방을 습격한원인은 그동류를 빼아서내여가랴함인듯하다더라

龍井外지威脅
중국상무국당참사 인민는모다피란중

두도구(頭道溝)를습격한마적떼는 동량촌(銅場村)、로산촌(老山村)을습격한다는청보가 자조잇슴으로 그곳에잇는조선사람과일본사람들은인심이홍々하며령사관 경찰대(領事館警察隊)들은전부두도구로 출동을한外닭에 제령사(堺領事)는 경비를하기위하야 함북도지사(咸北道知事)와방침을협의하는중이며 이십팔일오후에 두도구에서 령사관으로온 데이차청보에하얏스되 령사관에서 파견한말송경시(末松警視)가령솔한 순사 약삼십명은 방금도착하야 즉시경계에노력하며중국(中國) 상부국당(商埠局長)은현장에서 즉사하고 령사관과 순사관사한채는 전부불에타바리고 죽내순사(竹內巡査)는행방이분명치못하야 마적들이 사로잡어간듯하고 령사관분관금고는 안전하나 이도구(二道溝)에서마적이침입한다는 청보가잇슴으로 그곳에잇는관헌들은 두도구로 피난는하얏다더라(간도룡정촌뎐보)

琿春住民不安
군대보호를청구

혼춘(琿春)시가에도 마적이 습격하리라는풍설이 련하야 전하더니 이십팔일에 두도구(頭道溝)를습격하얏다는 급보가전하매 재류민의근심은 더욱심하야 일본인은 즉시 거류민회를열고 조선군사령관의게 보호하야 달나고 뎐보를 보내엿다더라

局子街도危險
교통外지두절

국자가두도구간(局子街頭道溝間) 교통은 전부파괴되야 통치못하며 국자가도 위험중이라더라 (간도특뎐)

同胞를慰問次로
본사지국특파원 두도구外지출장

두도구(頭道溝)의 마적습격사건은 이십팔일오후 세시에야뎐화가개통되야 륭재번 청보를엇게되얏다 그청보에의하면 마적의수효는 약이백명이라는데 이십팔일오전삼시에시가에침입하야 일본령사분관창고와 중국인 시가에 불을노코 군경과충돌하다가 오전여달시경에 퇴각을시작하야아홉시에북편산중으로몰려갓는데 일본령사관에잇는 관총과 기타병긔 탄약 전부를빼아서갓스며 일본경관의 사상이 잇는모양이오 재류하는 조선동포의소식은 아직지세치 아니하나 이명의 사상은업고 몃사람이 마적에게 붓모로 잡혀간것은 사실인듯하며 국자가로부터 중국군사 이중대가 두도구를향하야 [illegible] (간도지국특뎐)

今日

在外同胞慰問幻燈講演會
處所 高敞
會費 一四、五十錢、三十錢

西鮮은雨順風調
평안도디방은풍년의조짐

금년 서선디방(西鮮地方)의 농사형황은 파종기(播種期)가 예년보다 늣게진유감이 업지못하나 그후비가 고로오고 바람이순하야 혹시가물을 맛나든디방이잇다하야도 대개량호하며 더욱히 산이갓가운디방은 작년보다 도리어 풍작이라는데 근시 평양(平壤)부근 각처에는 남선디방(南鮮地方)에 한재가 심하다는 소문에 쌀갑이 별안간놉하지며 만섬에 삼원가량식이나 고등하게되엿스나 먼디방에서 좃차오는영향에 맹목뎍으로 놉나가든 쌀갑은 몃날이못되야 다시떠러지기를 시작하얏다하며 지난이십륙일부터 시작하야 나리는단비에는 더욱이농작물에 유익하리라더라 (평양)

田穀은解渴
경긔디방의농형 모는반쯤내어

수일동안 소낙비가 오다마다하야 가문못헤 바라든바외가치 만족하리만치는 오지아니하얏스나 경성에는질거리에 심하든몬지는 충분히죄시엇고 경긔디방 으로는 양주(楊州)에비가 좀만히 와서 마평에 오십 미리」 약아흡말가량이왓슴으로 이할가량이나 무리귀하야 모를못내이든것도

이번비에 거의 다내이게 되고 기타디방에는 별로만히온 데가업다는데 경긔도령 농무과(京畿道農務課)에서는원래부터 관내각군덩의 우량 즉삼십 미리」를 풍년으로 하게한것이라야 도령으로보고를 하게한바 닭에우량이 이상에달하기 전에 는보고가 업슬터이나 이번비도 원이 부족한곳임으로 그이상의 비가오지아니하면 논에모를 내일수가 업슴으로 그리한규칙이 잇다한다하며 간이번에

면곡에는 상당한 해갈이 되얏스나 모를내일만큼 온곳은 양수디방외에는 다시 업다는 데제일 모를못내인데가진위(振威)부천(富川)이오 경긔도전데의통계로보면 관내의논 십구만 천뎡보중에 십만천뎡보는 모를 내이엇다더라

武道大會
조선무도관주최 명일텬도교당에

유술과 검술등이 전하야오지 십여년동안에 시세의사정은 이러한데 유의발뎐을 도모치 못하얏스나 오직조선무도관(朝鮮武道館)의현재당국자제씨는 여러해동안간난과 장해를무릅쓰고 가위고군분투로 두가지 데육의장려와 교육에힘쓴결과 최근에는 이것을학습함이 필요한것을 점차사회에서 깨닷게되야 지금은 매일강습을바드러오는사람이 백여명에 이르는 성황에 [illegible] 무도의취지를 일반사회에 선뎐하기위하야 [illegible] 오후뒤부터 텬도교회당(天道敎會堂)에서 조선무도대회(朝鮮武道大會)를 개최한다는데 관원이 전부나와 유도검도의 여러가지 합법하는 경기를행하야 일반의 관람에 공개하고 겸하야 류숙희(柳淑熙) 류근만(柳根萬) 등 제씨의 [illegible] 잇슬터이며

입장료는 일등일원 이등 오십전 삼등삼십전이라는데 이에대하야 무도관당국자는 말하되「세상이 아는바와가치 데유에는 여러가지종류가잇서 각가지당처가 다르지마는유도와 검도로말하면 가정데육중에 데유이라할것이 잇시다 이두가지는 전신을고루두 건강하게하는것이 다른데유보다 우수한편이니라 정신의수양과 담력의단련에 특별한효험이잇스며 또한이두가지를 배호면 신데가 건장하야지는이외에 만일의위험한경우에 능히 여러사람을 대항하야 자긔몸을 보호할수가잇는 특장이 잇슴으로 데유를 장려하랴면

이두가지 를 보급케하는것이 데일긴요한줄로 미더 무도관으로 근일에는 지원자의수효가 나게되얏슴으로 단가진 [illegible] 일반에 이두가지의취미를 선전하기위하야 이번에 무도대회를 다행히 개최하며 대회의수입은 나마지가잇스면 무도관의 확장에 쓰겟다」하더라

各地方招請으로
교육협회강연대 두단으로난호아

조선교육협회순회강연단은사방에서와달나는 청구가 답지하든바 지난이십오일에 두단으로난호아 한단은함안군여항면、成歡郡山面으로가고 한단은동군산인면(同郡山仁面)으로가게되엿는데 그날밤아홉시로 간곳마다 그곳학교에서 강연을하야 삼백여명식되는 청중의게 다대한 감동을주엇스며 찬조금(贊助金)外지잇섯는데 며칠안등디에서 만일천여원에 달하얏는바 그의 씨명과금익는다음과갓더라

宜寧李祜楨金一千圓 咸安趙東綵金三十圓 趙鏞殺金百圓 李玹九金五十圓

巨額의寄附踏至
서백리교육회에

「시베리아」에잇는 조선인교육회(朝鮮人敎育會)주최로 「시베리아」에 중등학교를 설립하고 또는 신한촌(新韓村)에잇는 모범소학교(模範小學校) 건축비 [illegible]

◀휴지통

▲경성부에서는 조선말을 배우는 일본인 부리원들에게 장려할목뎍으로 방금 이에대하야한가지규뎡을 제정하는 중이라는데▲그규뎡의 내용은 현재일본인부리원중에 조선말시험을 뵈이어서 성적이 조흔사람에게는 한달에 오원식 특별수당을준다든가 ▲일본인이 조선말을 장려하는것은 매우조흔일이라 하겟지만은 돈이업서 엉々매인다는 핑계로 잡세장수 정지 세금을마련한 경성부에서 백성의피를글거다가 쓰는곳이 이런곳뿐인가 ▲일본인에게 주고 할도리는업습가 핑계지 조선어를 장려하라면 돈이아니라 핑계로일본사람에게돈량이나더 주자는말인가 ▲시내 관립 [illegible] 의학생은 본래고학생으로서 근일에수중에돈이한푼도업서々사흘동안이나 밥을굴멋다는데 ▲그부근에잇든봉래관(蓬萊館)이란중국료리집에서 특별히그들의 정상을보아「돈이생기기外지 외상으로국수를갓다 먹으라」하얏다든가▲가련한 고학생이오 긔특한 중국인

大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二十分
日入 下午七時五十八分
滿潮 一 二十九日午後六時 二 三十日午前六時
最高 二十八日 七九·五
最低 二十九日 七八·三

◉온도비교◉ (關八)

二十八日(正午) 七八·三
二十七日(正午) 七三·九
平年最高 九六·八

機關車火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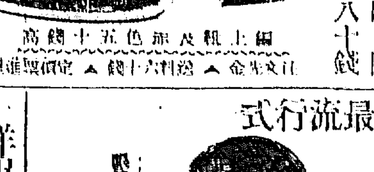
인천정거장부근 [illegible] 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경에 인천부화평리 이백오십팔번디 [illegible] 천부화평리 [illegible] 기관차의 [illegible] 불이 [illegible] 으로 다행히큰손해는 업시 [illegible]

◇모임◇

▲음악회 [illegible] 오후여덟시부터 [illegible]
▲풍산시대 [illegible] 조선인회(朝鮮人會) [illegible]

廣告

本人이今月二十四日午後六時四十分頃에京城南大門驛에서乘世手形五十五圓一枚李京祚家屋二聯貼一枚李昌馥當權一枚其他書類屋文券一枚本人에名刺及現金十圓을入한黑大花樣中이脫落되야見失하얏기茲에廣告함
大正十一年六月二十六日
[illegible] 孫泰熙


(特約店募集)
編上靴及靴色五十錢高
靴キッド皮 六圓
東洋ボックス皮 四圓
[illegible] 二圓八十錢
大阪市南區 [illegible] 合資會社 大成商會 振替大阪三一九四番
代金引換 ▲ 送料六十錢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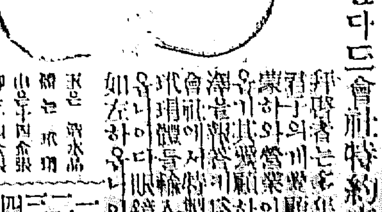
非常한好評밧는
淋疾速效藥
▲淋疾은本藥으로▲▲根治케된다▲
[illegible]

명 화
연 부 액
어엿분얼골、되려면반다시 항상발음지오
얼굴에모든 병을곳치려면 반다시 이것을 바르시요
市内各地化粧品販賣店에서 販賣 京城鍾路
동아부인상회

麝香靈神丸
救急良劑　起死回生
地方注文 引換代金
麝香靈神丸이라하면 先服用하신氏는
勿論證明하실터이지요 아모리急
性吐瀉霍亂이라도 眞品麝香을
加入한麝香靈神丸이면 即刻回生
定價 一圓十錢 一圓五十錢
京城 [illegible] 世一洋行藥種部

夏期講習生大募集
英語 漢語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英漢講習所

洋服裁斷法速成敎習生募集
科目 ▲學理的裁斷法敎授 ▲實用的裁斷法敎授
[illegible]

方今最流行式

(米國스단다드會社特約店)
拜啓陳者는 [illegible]
一號 七十圓
二號 五十五圓
三號 四十四圓
四號 三十四圓
五號 二十三圓
京城鍾路 [illegible] 明眼堂 主 張願元

陳久積滯百病中滯症神藥
陳久積 滯神藥 破積丸
[illegible]
壽星堂藥房

女丈夫(녀장부) (十)

雲人 譯

공화정부에서 보내인장교를 보고 로파가무는까닭으로 혼사말을하는지는 알수가업스나 이와가치 민병들이옹위를하고 만세를부르는 항중위는 엇더한사람인가하고 치어다본즉 군인중에는 희한하다할만한 미남자이나 쇄상에서 항용보는 련약한미남자가아니라 넘치는듯한용긔가량미간에 나타나며 귄데의용모가름름하야 누구든지 갓가히하기어려운 의풍이잇는중에 또한청숙스러웁고 인자한태도도 잇서커녀장미가 만일마음이 여상할녀에 이사람을보면 성각이엇더하얏슬는지 그러나지금은 남의용모에 류의할때가아님으로 다만의병의덕군에 정부의 장교가구원하라 오는것이 마음에미올뿐이라

그동안에 커편는문안으로 이편은문밧그로 서로지나처서 무사히로파의집에 오기는 하얏스나 덕군의준비가 이와가치 점차로엄밀하게 되야서는 우리의병의 귄덩이 실로근심이라고 편안치못한마음으로 간신히 밤을지내인후 이튼날아츰에는 날이새이기권에 이러나서 이디방장가커녀와가치 의복을차리고 다시성문으로드러와 어느곳으로 부터커드러오는편이 대일용이 할가한고 시가의사방을 두루두루삶혀보앗스나 도처의경비가 비상하엇중하야 조고만틈을 엿볼곳도업다

이번의의병이 반년컨「변디」디방에서 이러난후로 각커에서 커권을계속하야 커음에는 긔이하게승귄을 한일도잇섯스나 정부편의군사와 비교하면 군긔와 탄환도 변々치가지々못한 오합지중이나 다름이업시 흐미나장기이외에는 손에잡아본것이 업는농부이나 금의옥식에 싸여서 손톱에물이나 뭇어든귀족이 서로섞기어 다만국왕의게 대한충성으로 간난과 곤고를 무릅쓰고 목숨이 다하기까지는 공화정부에 항거코자 함인고로 아즈음에 이르러는 싸홈에 의일여망이 권권연히지고 마지막의운명을 이디방의한싸홈에 결단코저하게되얏다

이디방만 떠야스면 근커디방에서 의병에게참예할사람도 약간은잇슬것이오 또바다 하나를격한영국으로부터 구원을 어들길도 업니겟지마는 만일이디방을빼앗지못하면 장차 어느곳으로퇴진을할가 정부의관군은 이미사방으로부터 차々 에워싸아의병의 물너갈길을막는것은 분명히아는일이다 그러하다고 이디방을지는데도 당々한 정도의병법을쓸간한 사람의수효도 못되고 다만어느곳으로부터 사이길을구하야 방바하지아니한곳을 캐치고 드러갈방법의술은인데 그사이길을 구하는것이 커녀장미의 직칙이다

이가치 중한한직칙을 이가른커녀의게맛기는것은 대장도 당초에 주뎌치아니함이아니나 녀자인까닭에 덕군의의심을 피하기도 용이하겟고 또장미는 이디방에자라나서 사방의길도 자세히아는고로 농부출신의 늙은군사를쓰는이보다는 도리혀 긔이한공을 이룰가하고 평시에긔묘한 커략으로 덕군을처어하는 대장은 특별히장미를 선퇴한것이다 더욱이장미는 어렷슬때부터 국왕의충신인 당백작과 그아들당불원의 교훈을받다 녀자의마음으로 오히려 국왕을위하야 한몸을 바치는것이 당연한직칙이라결단하고 의병의 일이라면 위험과곤고를 조금도 실혀하는일이업시 대장의 한말분부아래에는 깃거웁게 죽음을향하야 하는녀장부임으로 이러한일을하는데 다른군사보다 나흐면나앗지 못할리는만무하다

장미는음내의각처를일일히조사하야 어느곳으로든지 커드러올틈이업슴을 분명히 보앗슴으로 이커는해안의언덕에 현준한바위틈의길을 가릴수밧게업다 고 날이커물림시에 해안을향하야나가 언덕이 다하는곳에와지 이르니 여긔는정부에서도 험준한것을미듬이든지 다른데와가치는 방비를하지안코 다만새로히 흙과돌을 싸아 한곳의단을만드러놋코 대포한채를 노앗슬뿐이오 이것을직히는 군사도업다

이곳이야말로 의병이 커드러갈만한곳임으로 오히려 알호로나가 언덕쏫헤나서서 몃컨길이나 되는듯한아래를 나려다보니 어렷슬때에 동모들과가치 바위틈의쏫과풀을 뜻드면서 오르나리든좁은길이 아직도 성각에나마잇슴으로 어린아해의 오르나리든길에 죽기를 결단한국왕의 의병이 올나오지못할리가 업스리라고 언덕에사태난곳을 차커서 시험으로 몃간등안나려가본즉 어렷슬때에 속곱질하는케소로덩하얏든 평々한바위우에 익기가 가득히덥힌곳도잇다 이것을 보고는 홀연히녯성각을억게치못하야 피곤한몸을 수이고커 익기우에주커안커 바다에서 부러오는바람에 머리털이 날리는것을 무심히바라보고 안졋노라니가 마음은자연히 어렷슬때로부터 이러가지지내인일로 차々옴기며 가다가 나종에는 지난밤의무서움든일가지 성각에 떠올으고 또다시 그비밀한주머니와지 성각이나는고로 마치어린아희가 작난가음을 집어내이듯이 옷주머니에서 그비밀한 주머니를집어내여 손쏫으로 이리커리만져々々하다가 이주머니는 죽은사람의목에서 벗겨내인것임을성각하고 다시마루에서 나온해골의일까지 싱각하매 이주머니에 무서운것이 부터잇는듯하야 이속에무엇이잇는지는 알수업스나 어느때가지든지 몸에지니고다니기는 마음에 실흔고로 찰알히 이곳에 던커바리리라고 마음을결단하고 주머니를 든대로 이리서는데이녀에 바다우흐로부터 멀니총소리가 들려온다

高聖運氏의壯志

全南和順郡道谷面道里高聖運氏는相當한財産家이오且天性이寬厚하야慈善的事業과公益的用心이不少하얏슴으로遠近間稱頌이籍々하며衆하야頌德紀念碑가散在한터인데今番에도同里에在한改良書堂에每月數拾圓式自擔經營함에不拘하고同面私立普通學校期成會에對하야校舍建築費萬餘圓을自擔하겟다하야大規模의學校가될터임으로一般面民은勿論이오隣近邑面에그의教育에對한特志를感謝不已한다더라(綾州)

新設里興風會事業

高敞郡崇仁面新設里興風會는地方自治의期成과民智啓發及民風改善을目的으로하야設立된것인데特히新設里를朝鮮模範里로自治를期成코자里內有志의努力은勿論이오一般會員이一致協力하든中今春에會內幼年等은里內沓川街道及其他에並木六百本을植樹하얏고撒水車及衛生車를作製施行하얏스며今般은特히會中靑年團에서消防具及防水具其他傳染病豫防의施設에補用키爲하야風俗改良劇과其他滋味잇는餘興으로演奏會를한다는데六月三十日七月一日兩日間興行한다더라(潭源里)

昌興學校開校式

定平郡府內面私立昌興學校에서는去二十五日正午에同校講堂에서開校式을擧行하얏는데校長元斗萬氏의式辭와經過報告가有한後郡守鄭潔氏의告辭가잇고來賓中으로山下遞吉茂木鐵藏韓永述韓秉斗李承浩金斗煥諸氏의祝辭로外午後二時에式을了한後主客五百餘名의午餐會가亦有하얏다더라(定平)

崇實巡講團出發

文化宣傳을目的하고每年冬夏兩期의休暇를利用하야全鮮地方을巡回하되北으로奉天에까지至하야우리民族의게만흔覺悟를나튼켜오든平壤崇實大學學生會에서는例에依하야本年은特히同校高等學生靑年會宗教部主催로平南孟山、德川、寧遠、三郡地方巡講을豫定하고去廿六日自働車로同地를向하야出發하얏다는데一行士는金礪弼、林岐周兩氏이며往返期는約一週間을要할터이라더라(平壤)

安岳漫話

時急히講習所를設하라

安岳支局 一記者

安岳邑은 黃海道中에서 第一戶富邑이오 또第一大邑이라 戶數와人口를他邑에比할지라도 第一이요屈指할만하며 位置와生活을他邑에比할지라도 亦第一爲名할만하다 特히近來에至하야는諸般現象이數年前에比하야長足進步된中 敎育方面에對하야觀察하면 더욱히그러하니 目下外處에留學하는生徒總數가百餘名에達하얏스며 時勢變遷에應하야 普通學校와및私立安新學校에入學을志願하는者가 或은定員의六七倍 或은五六倍에達하는터이라 이는勿論우리가 우리安岳을爲하야 또우리民族全體를爲하야賀로喜하는心으로부터慶賀하는바이나 그러나그反面에 이와갓치學에熱心하는多數兒童을滿足히收容할機關이缺乏함으로 各學校試驗場에서 더욱히入學의初門인普通學校試驗場에서演出되는 커悽慘한光景을目睹할時에그누ㅣ라能히熱淚의下함을禁하리오 大概文明國이라野蠻國이라함은 무엇으로써함인가 要컨대 敎育의完不完 따라知識의有無로써判定함이니 우리朝鮮人이眞實로野望一字의冠詞를免하라할것갓트면 不可不敎育機關을完備하야 우리의知識을發達하여야할것이아닌가 本邑의體面을生覺하며 安岳靑年이며 諸君의名譽를生覺하야볼지어다 諸君은果然이敎育機關設備에對하야 如何한責任을有하며 使命을持하는가 敎育의機會를엇지못하야 生命의길을찻지못하야 東西에彷徨하고 南北에徘徊하는 五六百名의安岳兒童을見하라 收容를일흔어린羊과 父母를떠난어린兒孩와가치 可憐한情形에處하지아니하엿는가 諸君이奮起하야 此兒童을救濟하지아니하면 收容하지아니하면 이兒童을救濟할者가誰며 또引導할者가誰인가 安岳에도他邑과갓치講習所一個라도設立하야如此한兒童의게敎育의機會를提供하면이곳彼等에게生命水를供給하며 光明線을開拓함이안인가 諸君의子女는 子弟들이어 諸君의子女는 富로써 滿足히工夫할뿐아니라 外地에留學까지라도 自由로할수잇다하야 自誇하지말지어다 諸君의子弟가비록天上에昇한들 一般多數兒童이 地下에陷하면 그우리民族을 엇지하며 民族이亡한後에 그무슨個々人의幸福을바라리오 此際에諸君이稱起하야 諸君의責任을다하지아니하면 이單히安岳邑의體面과名譽를毁損할뿐아니라 그實로安岳日證와 民族그全體를毁하야 海中에投하는것과何等差異가無한大罪惡을犯하는것이라 安岳靑年이어 富豪의子弟들이어 諸君이誠力을加하야 敎育機關을設備하고 靑年子弟에게生命의機會를提供하면 此로因하야 그靑年은陽春佳節에光華를發하는草木과갓치光輝를發할것이아니며 花間에奔走하는蜂蝶과갓치그生命을喜樂할것이아닌가 諸君은力不足을請하지말지어다 諸君의眞實로誠力만有할것갓흐면 講習所와如한것은 諸君單獨의力으로도能히擔當할만한富力이本邑內만하야도十餘人에達하지아니하는가 高利貸金으로써그貨만殖함이決코人生의目的이아니며 또한價値가아닌것을覺悟할지어다 그러나 우리는諸君에게難을責하지아니하며 多言을求하고자하지아니한다 爲先不幹한學齡兒童을爲하야 講習所를設立하라 이諸君이여 諸君의責任을다하는一步라하노라

夜校新築落成式

務安郡二老面山亭里(元通洞里)夜學校消息은向日本紙에報道하얏거니와該里人士는完全한校舍가無함을遺憾으로思하야該洞里契金으로去月初旬부터建築中이든바本月十九日竣工하고二十日上午九時부터落成式을行하얏는데來賓으로는木浦基督敎會長其他附近有志가多數히列席한裡에盛大히式을終了하얏는바當日基督敎會에서는金一封을寄附하얏다더라(木浦)

江外面兩私塾消息

淸州郡江外面五松里에서는金圭軾黃友顯朴性玟等有志의發起로私立五松學塾이創設되야去四月十日부터公普校에入學치못한附近村落의兒童을收容하야熱心敎授한다는바生徒數는男女並하야五十人에達한다하며運堤里에서는朴準夏呂正炫朴永九等諸氏의發起로私立新明學塾이創立되야去五月一日부터李圭憲氏가敎授에熱心하는中인바生徒는一二年級을並하야三十餘人이라하며兩校의維持方針은生徒一人에對하야每月一圓式徵收하야費用에充當한다더라(鳥致院)

水産課長의講演

總督府水産課長은松野水産技師와共히去二十日龍岩浦에來着하야午後二時부터公立普通學校에서水産講演을行하얏는바聽講者가一百五十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스며閉會後同校事務室에서當地有志黃觀河氏로부터水産에關한地方朝鮮人漁業者의希望及不平을陳述하얏는데水産課長은多大한參考가되얏다고意思를表示하얏고同八時부터當地喜樂亭에서日鮮人有志一同主催의歡迎會가有하얏다더라(龍岩浦)

沙里院都市金融

京義線沙里院에서는都市金融組合을期立中인바七月中에許可될터인대名稱은鳳山金融組合이라稱한다더라(沙里院)

和順郡安會淳孝行

全南和順郡道林面梅亭里安會淳(二七)君은幼時로부터天性이寬厚仁慈할아니라特히父母에對한孝心이過人하더니再昨年九月頃에其父親이偶然得病하야委席呻吟中에安會淳은日夜侍湯에殆히寢食을忘함으로隣人의稱道가藉々하얏고同年十一月中에其父親이畢竟不歸의客이됨애初終凡節을禮로써擧行後에親山下에蘆幕을設하고于今三年間을一日과如히侍墓하는대에深夜에는山間猛獸가該幕左右를種々來往하되少不動念할아니라一日은大雨가暴注할同時大虎一頭가蘆幕一隅에蹲坐旋去한事도有하얏다如此한奇蹟이有함에感歎하는面內有志一同은發起하야墓道路를修理하매附近安氏는固辭不應하얏다하며附近人士의訪問이連絡함으로本社綾州分局員이實地를調査키로出張하야同面駐在所에探知한즉果是事實임을尹斗翊巡査가말하며將次當局에서도相當한褒彰이有하리라더라(綾州)

利川蠶繭共同販賣

利川郡廳에서는農家의副業으로養蠶을特別獎勵하야每年共同販賣에努力하야오든바今年부터는勸業課에서各面各里로出張하야熱誠으로一層獎勵한結果昨年度보다三割以上의增加가되야六月十二日부터同二十五日까지十四日間에亘하야一千八百貫의共同販賣를하얏다는대其等級과價格은如左

等級	又昔一貫(圓)	交配種一貫(圓)
特等	九、九七	一〇、七三
一等	九、一四	九、八三
二等	八、三一	八、九四
三等	七、四八	八、〇五
四等	六、六五	七、一五
等外上下平均	三、七四	四、〇二
屑	一、六六	一、七九
玉	三、五五	三、六〇

(利川)

民衆劇團來壤興行

幼稚한朝鮮의劇界를改革하야時代에適切한演劇으로社會敎化上에一助를짓고자하는半島文藝社의民衆劇團安光翊外二十名一行은六月二十三日부터平壤平安劇場에서興行한다는대在來의劇보다는改良된點이만흠으로多大한歡迎을밧는다더라(平壤)

●海港敎育會代表出發 海參威朝鮮人敎育會代表白晁煥吳昌煥兩氏는中學校設立計畫으로大邱에來하야物質的援助를得하라하얏스나現下金融이緊縮하고또한大旱災로因하야人心이不安한境에在함으로不得已來秋에更來하야目的을達하기로하고去二十五日에回程하얏다더라(大邱)

●大田橋通行解禁 久히交通禁止로써一般車馬通行에不便이甚하든大田川橋는其後修繕에着手中이든바去二十一日竣工되얏슴으로同日부터一般車馬도通行케되얏다더라(大田)

●公州農校生日本見學 忠南公州公立農業學校第三學年生徒一同은同校敎諭盧庭鶴德田新八兩氏의引率下에七月一日當地를出發하야東京以外各處를見學할터인대歸期는七月二十日[redacted]라(公州)

主催 開城支社 開新社 生活社

時日 [redacted] 九兩日間

場所 [redacted] 政局코ㅡ트

參加區域 [redacted] (州江華延白金川)

開城 [redacted] 球大會

申込場所 [redacted] 高麗書院

申込期日 [redacted] 二十日까지

參加團體 [redacted] 式(一組에一圓)

後援 東亞日報開城支局

各地靑年[redacted]

馬山俱樂部任[redacted]

今月十九日下午四時[redacted]同會館內에[redacted]司會下에左[redacted]理하고同七時에閉會하얏다더라

一、各部事業에關한件

二、財政에關한件

三、少年野球大會에關한件

四、其他事項(馬山)

[redacted]수敎活動隊着洪

예수敎靑年聯合會夏期[redacted]活動寫眞講演團一行은去二[redacted]日自動車로洪原三湖에來到[redacted]金濟淑氏司會로當日午後八[redacted]부터金濟伯家庭에天幕을張[redacted]尹權氏의趣旨說明이有한後[redacted]道氏의樂天的生活이란問題[redacted]辯이有하고繼하야耶蘇行[redacted]을映寫하야信不信者에게感動을주고午後十二時에閉會後靑年會主催의歡迎席에臨하야지미잇는談話가만흔中에散會하얏고其翌日은本邑耶蘇敎會에서收鄭元七氏司會로午後八時부터開會하야朴熙道氏의生活이란問題의雄辯이有한後活動寫眞을觀覽하야數百名의觀衆에게만흔感動을주고同十二時에閉會하얏는데鄭元七金倍根外諸氏主催의歡迎會가亦有하얏다더라(洪原)

湖西巡講團來溫

朝鮮靑年會聯合會湖西巡講團一行은去廿二日忠南溫陽郡元邑內里에到着하야有志諸氏의斡旋으로午後九時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講한바男女聽衆은無慮五百名에達한지라方仁根氏司會로開會의辭가畢하고演士金喆壽氏는「靑年의今世」란問題로高龍煥氏는「聯合生活의必要」란問題로約二時間洛々한雄辯은一般聽衆에게非常한興奮을起케하야大盛況裡에散會하얏스며更히歡迎會가有하얏다더라(溫陽)

矯南基督靑年講演

大邱矯南基督敎靑年會社交部主催로去二十四日下午八時三十分에大講演會를南城町禮拜堂에開催한바聽衆이千餘에達한盛況을呈하얏는데演士는開城金祠濟先生이엇더라(大邱)

海參威演藝團來金

天道敎靑年會海參威支會의主催인海參威學生演藝團一行十三名은團長韓容憲氏引率下에去二十三日金海에到着하야金海靑年會後援下에同日午後八時金海天道敎會堂에서音樂舞蹈會를開催하야大歡迎을受하얏는대同一行은二十四日密陽方面으로出發하얏더라(金海)

木浦靑年任員會

去二十一日午後八時에當館內에서會長金商燮氏司會下에任員會를開하고總務車南鎭氏가本會宿題로延期하얏다든東京苦學生同情件에對하야數日內로活動寫眞巡回隊를組織派送하기로提議하야一般任員이討議한結果一致可決되야特別한事由가업는限에서速々發送하기로決定되고東京留學生學友會講演團이來木한다함에對하야後援하며且留學生庭球團이試合을請함에應戰키로決定한後閉會하얏다더라(木浦)

全鮮蹴球大會延期

馬山에서開催될全朝鮮蹴球大會는當地實業界有志諸氏의後援을得하야來七月七日八日兩日間開催키로하고此에關한準備와施設의諸般을大規模로써着々進行中인바이믜各團體로부터加入又는照會等이日復踏至함은感賀인同時에本支局은好球家를爲하야더욱遺憾업시圓滿을다코자하든바目下旱天의繼續이長久하야一般의要求가大한事情임으로不得已七月十七十八兩日로延期하얏더라(馬山)

忠南北庭球大會

來七月二日에忠淸南道公州鳳山庭球場에서忠南北의庭球戰이열닐터인대兩方에서는方今猛烈히練習中이라더라(公州)

橫城聯合庭球大會

橫城靑年會에서는六月十八日午前九時부터普通學校運動場에서同校學生選手와聯合庭球大會를開催한바赤白兩軍으로分하야對戰한結果勝利는白軍에歸하얏다더라(橫城)

載寧基督敎靑年會

黃海道載寧郡은黃海道內에巨都일뿐아니라基督敎의中心地요根據地임에不拘하고아즉基督敎靑年會가無함으로大遺憾이든바邑內有志의發起로六月十五日基督靑年會組織總會를載寧聖經學校內에서開催하고規則을通過한後任員을選擧한바左의諸氏가被選되얏더라

委員長簡秉濟 庶務部長張仁錫 宗敎部長林職衡 三育部長白根學 會員貫致態 崔熙俊 金道根 金聖夢 李根弼 姜晉弼(載寧)

職業

●一日三圓 特約店大募集 三榮總本店

朝鮮平壤府里門里三五 德興商會

學生帽子 鳥打帽子 製造販賣 各種附屬品直輸入

◎ 主 羅錫煥

歐米式洋服部 牛皮毛皮賣買委托部

上海法租界協盛洋靴店廣告

上海法界 洋靴專門 協盛洋靴店

[illegible]

임질 매독 全治藥

八日 四圓

朝鮮總督府病院 醫科大學 帝國大學

百圓進呈

京城南大門外 有田드락구 本部

京城黃金町電車通 同鍾路十字街 龍山三角地 釜山辨天町 馬山都町 群山東榮町 木浦榮町 元山本町三 平壤郵便本局前 鎭南浦三和町 仁川宮町二 大邱 晉州大安洞 咸興本町 統營 全州高砂町 甘浦 羅南生駒町

有田드락구

海墨廣告

海墨製造販賣를本人이由來經營이든바間宋源弼君과共同營業이옵드니宋君은形便에依하야解約이옵고本人이依舊專營이옵기玆以廣佈하오니江湖僉彦은倍舊愛顧하심을望

製造販賣 海州共同製墨所 海州郡海州面北本町一四七 金泳澤

油煙製翰林風月 九十錢

芙蓉賞月 三十錢

芙陽梅蓮 三十錢

首百世風 二十錢

遠製香淸 四十五錢

碧城煙 四十五錢

六角塔 三十錢

洋劇專門 黃金館

六月廿五日부터 新映畵提供

此廣告를切取하시야御持參하시는분에限하야 大人三十錢均一 學生二十錢均一

實寫 週報 全一卷

喜劇 捨한男 全一卷

森林活劇 强者의威力 全五卷

連續活劇 燃하는圓盤 第十五篇 第十六篇 全四卷

社會悲劇 尼寺의百合 全五卷

每日晝夜 二回

好職業

朝鮮大邱府弓町十九番地 滿鮮總本部

專賣特許各國輸出品販賣 好評今般本社와交涉한結果 特約店大募集 內容欲知諸氏는金一圓先送하면詳細를一冊送附함

一日三圓純益 月四千七百餘圓實利益 無難히得할道具一切無料貸與製品永久買受함

各種洋襪時價表

[illegible]

各種帽子製造部

[illegible]

平壤府壽町六二 大昌商會 主任 尹基鎬

사자표 빈대약 殺蚊線香

效力第一 人畜에少無害하오

本舖 山本除蟲菊株式會社

販賣店 京城府

代理店 長谷川町 鬼頭支店

楠商店 裁縫機械部

大技術曲馬團

東亞日報 愛讀者優待券

日本一 木下巡業團

汽車 [illegible]